농구

8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소구 초등이

"경찰관들, 종합격투기 배웁시다" 로드FC 정문홍 회장의 파격 제안

"인천 흉기난동 사건…본능이 우선 이해 전국 로드FC 체육관서 50% 할인해줄것"



ROAD FC 로드FC 정문 홍 회장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경 찰관들의 종합격투기 수련을 제안했

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게

재했다. 그는 "본인이 위험하다는 본능이 사명감보다 우선된 것 같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남의 이야기 니 말하는 거야 쉽겠지만,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해도 과 연 이런 상황에서 나서기가 쉬울까?"라며 당시 출동한 경찰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 면서 "방법은 있다. 때릴 수 없다면 잡으면 되고, 잡아서 안 되면 던지면 되고. 던져서 안 되면 조르면 된다. 이것 이 종합격투기(MMA)고 실전에 사용이 가능한 격투 스 포츠"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연일 정부에서 발표만 하고 대책은 세워주지 않으 니 젊은 관장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예산을 써서 경찰관들 건강과 시민들 안전을 지키고 젊은 실내체육인들도 지켜주는 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어 "경찰관분들 운동을 시켜보라. 본인 도 건강해지고 시민들도 안전해진다. 예산이 부족하면 전국 로드FC 체육관에서 50% 할인을 해드릴 수 있다. 젊은 실내체육 관장님들과 함께 '위-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방송용' 허재 명예 부총재?

개막 영상서 '명예 부총재'로 소개 팬들은 "농구 위해 컴백했다"환영 알고보니 방송용으로 한시적 사용 KBL 이사회 승인 받아야 하는 직함 집행부 미숙한 일처리…팬들만 황당

'허재 KBL 명예 부총재.'

기사도,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영상도 있다. 하지만 방송에만 존재할 뿐이란 다. 무슨 영문일까.

허재 전 감독(56)은 올해 10월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 로농구' 공식 개막전에서 시투를 맡았 다. 당시 경기장내와 TV 중계방송에선 그를 KBL 명예 부총재로 소개했다. TV 중계 아나운서의 코멘트도 있고, 자막도 있다. 허 전 감독과 인터뷰한 농구전문 지의 기사에도 '명예 부총재'와 관련한 질문이 있다. 이에 허 전 감독은 자연스 럽게 대답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KBL에 물었다. 허 전 감독이 공식 KBL 명예 부총재인지 확인했다. 대답은 '아니다'였다.

KBL 관계자는 23일 "농구 흥행을 위 해 한 방송사와 농구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허 전 감독이 방송에서 만 한시적으로 명예 부총재 직함을 사용 하는 것이다. 직함 활용 기간도 정해놓 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막전 영상을 농구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프로농 구 중계방송사와 협의해 자막을 넣었다. 10개 구단 사무국, 개막전 현장을 방문



허재 전 감독은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공식 개막전에서 시투를 맡았다. 당시 중 계방송은 물론 장내에서도 그를 KBL 명예 부총재로 소개했다. 하지만 KBL 확인 결과 이는 방송용이었 다. '눈 가리고 아웅'이자 무사안일주의의 촌극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진 캡처 ㅣ SPOTV

한 기자들에겐 사전에 설명했다"고 덧 하지만, 농구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측에서 보안을 요청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남 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허재 KBL 명예 부총재'는 온전히 방 전 감독이 프로농구의 인기 회복을 위해

송에서만 사용되는 직함이다. 그런데 이 붙였다. 그 뒤 "이런 사실을 더 알렸어야 와 관련해 방송사의 요청을 이유로 KB L이 정보를 차단한 탓에 전혀 알 수 없 었던 팬들은 영상과 기사를 보고 고스란 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농구팬들 은 연예계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허 앞장섰다고 생각했다.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팬들을 대상로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다. 10개 구단 사무국장들에 문자로 고지했고, 일부 농 구 관계자들과 극히 일부 언론만 알았다 고 해서 모든 게 용인될 순 없다. KBL 집행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KBL 사무 국의 안일한 일처리와 현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빚어낸 촌극이다.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다.

명예 부총재를 임명하기 위해선 KBL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V 프로 그램 내로 한정해 명예 부총재 직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명예'라는 말이 추가됐지만, '부총재'라 는 직함을 TV 프로그램 내에서만 활용 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KBL 이사회에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 집행부가 들어선 뒤 열린 이 사회에서 방송용 명예 부총재 관련 내용 은 언급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농구인기 회복을 위해 허 전 감독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 아 명예 부총재로 임명했으면 될 일이 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KBL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KBL이 리 그 최고의 레전드를 대우하는 방법부터 틀렸다. 최대한의 예우로 최소한 레전드 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농구대통령' 허 전 감독과 허상이 된 'K BL 명예 부총재'를 바라보는 농구팬들 의 기분은 어떨까.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하나 '3점슛 성공률 꼴찌'…KB스타즈 간 강이슬은 43% 펄펄

경기당 득점 5위…득점원 공백 타격 강유림 보내고 영입한 구슬도 이탈 올해 1승뿐…공격루트 다양화 절실



부천 하나원큐는 올 시즌 1승8패로 최하위다. 2020~ 2021시즌 후 자유계약선수 (FA) 최대어 강이슬이 청주 KB스타즈로 떠난 여파가 적

지 않다.

이었다. 처음으로 평균 출전시간 30분을 념긴 2016~2017시즌부터 2020~2021시 즌까지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평균 득점과 38% 이상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다. 결 정적 승부처에서 외곽포로 분위기를 바꾸 는 승부사 기질 등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가치까지 상당했다. 강이슬의 FA 이적에 따른 우려가 컸던 이유다.

올 시즌 하나원큐의 세부 기록은 처참하 다. 경기당 66.9득점(5위)-79.8실점(최다

강이슬은 지난 시즌까지 팀의 주득점원 1위)에 3점슛 성공률(24.9%)도 최하위다. 올 시즌 42.6%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 중인 강 이슬을 바라보면 속이 더 쓰릴 수밖에 없다.

> 게다가 2020~2021시즌 신인왕 강유림 (용인 삼성생명)을 보내는 3각 트레이드를 통해 부산 BNK 썸으로부터 영입한 구슬 은 무릎 부상으로 2경기만 뛰고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아 전력이 더욱 약해졌다. 구슬 이 2경기에서 평균 13점을 올렸던 터라 더 욱 뼈아프다. 외곽슛 능력이 뛰어난 강유 림을 보냈는데, 구슬마저 이탈한 탓에 공

격 옵션 자체가 현저히 줄었다.

신지현(경기당 18.11득점)과 양인영 (14.56점)을 제외하면, 평균 득점 6점을 넘 는 선수조차 없다. 이 둘이 집중마크를 당 할 때 실마리를 풀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 공격 루트는 단조롭고, 그만큼 득점 확률 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비 조직력에도 허점이 뚜렷하다. 신지현(25점), 양인영 (18점), 고아라, 이지우(이상 10점), 김지 영(9점), 이하은(8점) 등 6명이 고르게 득 점하며 올 시즌 유일한 승리를 따낸 12일 BNK와 홈경기(84-81 승)에서 그랬듯, 공 격 루트를 다양화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테잎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딴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장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 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 (구입 문의:063-232-5877)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해 각종회 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 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 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

영업자. 학생, 회사

원, 종교인, 주부들

에게 선풍적인 인

기를 끌고 있다. 특

히 비즈니스 거래

상 호주머니에 넣



고급형 (저가용) 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 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 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 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딴소리', '거짓 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 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 녹음 강의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 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 으면 정지 대기 비밀녹음시 유용), 반복재생기 능,자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삭제기능, 음량조절기능, 이어폰 사 용기능, 유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 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농협: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63-232-5877 국제종합물산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

귀가 잘 안들려 불편한 사람에 답답함 해소

소리가 잘 안들려 답답한 사람에게 깨끗하 고 선명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 지털 전자제품 음성 증폭기가 출시되 희소 식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조합물산 (구입문의: 080-232-5866)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어짱 음성증폭 기가 바로 그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가 잘 안들려 불편하거나 TV를 시청할때 답답했 던 사람, 전화나 핸드폰 통화 시 선명한 통 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교회나 대강당, 넓은 공간 등에서 강 의, 세미나, 수업, 설교 등을 또렷하게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제품으로 평가

이 제품의 특징은 잡음이 적게 회로가 설계 되어 큰 소음은 차단하고 보통음, 저음, 중 음. 고음 등 4가지 음색을 사용자가 설정하 여 작은 소리를 크게, 큰 소리를 적당하게 볼륨을 조절하여 자유자재로 음량을 직접 맞추어 들을 수 있다. 기존 음성증폭기와는

달리 특정 음역대역만 을 선택하여 듣거나 한 쪽 귀에만 꽂아서 들을 수 있고 양쪽귀에도 꽂 아서 들을 수 있다. 또 한 약2시간 정도의 충 전으로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의 크기는 길이 5.4센티 넓이가 1.5센 티 두께가 1.2센티로 매우 작고 가벼운 블 루투스 형태로 귀에

꽂아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특히 수백만원이 넘는 수입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잡음 등이 거의 적어 국내 생산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 다. 대화할 때 큰 불편을 느꼈던 김모(65)씨 는 "일상 대화나 TV시청 넓은 강당 교회 등 에서 설교 시 귀가 잘 안들려서 답답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 후부터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 답답함이 해소되었다"며 "연세가 많으 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 다. 사용방법은 블루투스를 한쪽 귀에 꽂아 사용한 방법과 스테레오 이어폰을 양쪽 귀 에 꽂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이 제 품 판매의 한 관계자는 "음성증폭기는 IT기 술을 접목한 최첨단 디지털 전자제품이며 의료기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협: 511-12-185903 (예금주:고봉석)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아침이 가뿐 · 상쾌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

강한 몸과 발은 건강

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

다." 며 "발은 자극하

거나 다른 방법을 통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출시, 판 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종합물산 에서인기리에 시판하고 있는 목초수액시트 는 자기 전에 양쪽 발바닥에 붙였다가 아침 에 일어나 떼어내는 건강증진 보조제품으로 갈색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돼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목초(木酢)는 목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 오는 연기로부터 채취하는데 나무를 숯 굽 는 가마에 넣어 구우면 수목내부의 엑기스 가 증발하여 연기와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 을 급속 냉각 일정기간 지난 후 정제과정을 거친목초수액시트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 는 발은 전신이 투영된 반사구나 경혈이 모 인 장소로서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 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땀, 소변, 대 변, 등을 통해 불필요

호에서 발 관리전문가 (예금주:고봉석)

한 것들이 빠지고 있으 나 그 불필요한 것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것 들이 발에 쌓인다는 것 이 발 건강요법 전문가 들의 말이다. 월간 '주 부생활' 2001년 10월

나 떼어 내면 되고, 발바닥외의 무릎, 팔, 다 리, 어깨, 허리 등에는 24시간 붙였다가 떼 어 내면 된다. 이 제품은 무릎, 팔, 다리, 어 깨,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장시간운전 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 락, 가사 일이 많은 주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미용실서 일하는 사람,수험생, 연로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판매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절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니며 공산품이지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 으로 소비자들은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며 "관계법령에 의해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해 관리하면 건강증진에 좋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의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다. 자기 전

양쪽 발바닥에 1장씩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

농협: 511-12-185903

문의 🕾 063-232-5855 국제종합물산